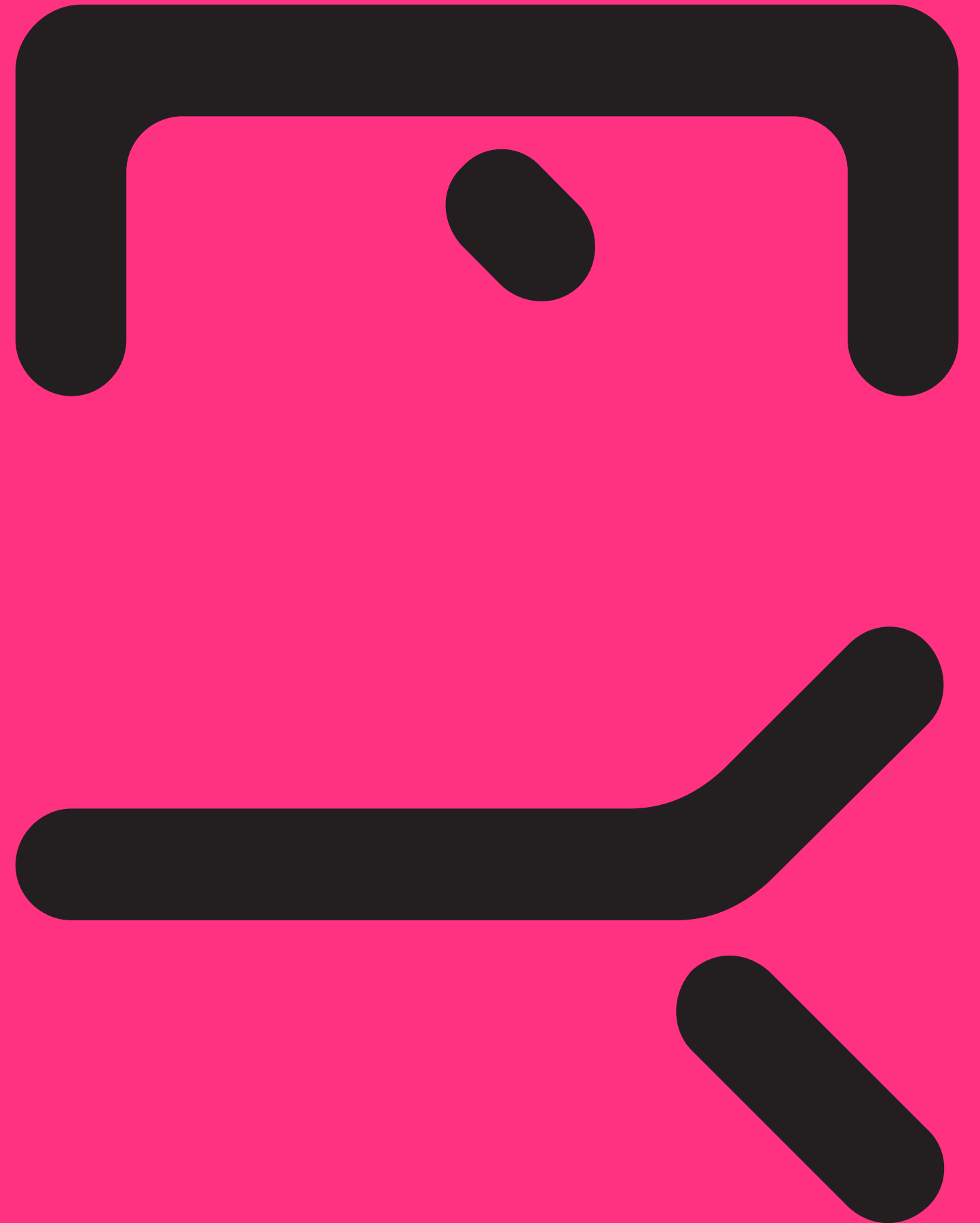




소나무갤러리와 함께 하는 #4 《시간의 피부》전

2022. 07. 07.(목)–07. 23.(토) 17일간 개최하는 《시간의 피부전》은 《수성아트오디세이》 시리즈 마지막 전시이다. 이 전시를 끝으로 수성아트피아 상반기 전시를 모두 마친다. 소나무갤러리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의 장르는 ‘영상설치’이며 초대작가 3인은 김미련, 손영득, 오정향이다.

손영득 Son Youngdeuk
현재 계명문화대학교 교수인 손영득 작가는 ‘불안과 안정 사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전시한다. 손영득 작가가 설치한 ‘외발자전거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는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작품이다. 관람객을 작품 속에 끌어들이는 것은 작가의 작품제작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함이다. 지속적인 흥미 유발은 물론 긴 호흡으로 작품을 감상해주시기를 바라는 작가의 바람도 내재되어 있다. 관객친화적인 이 작품은 관람객이 외발자전거를 타고 패달을 밟으면 스크린에 영상애니메이션 화면이 펼쳐진다. 내용은 주로 대구의 역사를 보여주며 그 역사는 시민들이 변화시켜온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부분적으로 삽입된 작가 개인의 서사가 재미를 더한다. 판타지적이고 초현실적인 화면구성은 자전거를 타고 꿈속을 유영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번 전시작품 ‘불안과 안정 사이’는 중심을 잡기 위해 사람이 필연적으로 움직여야하는 외발자전거의 특성을 잘 이용하였으며, 불안정을 극복하고 안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인간 삶의 필연을 보여준다.

오정향 Oh Junghyang
오정향 작가는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졸업 후 8회의 개인전을 개최한 작가는 이번 전시에 2분 50초로 재생되는 가변크기(variable size) 인터랙티브 영상작품 ‘기록된 기억(recorded recollection)’과 45×45×20(cm) 3D 홀로그램 영상설치작품 ‘기억

단추’를 설치한다. 오정향 작가의 작품은 도시에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변화를 거듭하는 삶의 공간(도시공간)을 기록한 것이다. “낮은 사다리가 놓인 아파트 화단이나 저층 아파트 옥상 풍경은 지금은 볼 수 없는 이미지가 되었다. 이런 풍경은 누구에게는 낯설고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기억 속의 풍경이다. 이미지[영상]는 재현과 창조 사이에 위치한다. 이것은 각각의 기억에서 출발하지만 창작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난다.”(작업노트) 익숙한 듯 낯설고 낯설지만 익숙한 풍경을 재창조한 오정향 작가의 작품은 작품 속 풍경을 통해 관람자가 자신만의 기억을 소환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기억 공유자-작가-관람자를 연결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오브제를 홀로그램 영상으로 만들어 별도로 전시하는데, 이것은 기억의 매개이자 동시에 기억을 재생시키는 재생 버튼 (button)의 역할을 한다.

김미련 Kim Miryeon
그룹 로컬포스트(대표)인 김미련 작가는 2008 독일 뒤셀도르프국립미대 학사 졸업 후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귀국하여 2013 경북대 디지털미디어아트 박사수료한 뒤 국내외 무대에서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기록한 ‘사진’과 ‘자화상 조각’을 설치한다. “몸에 생긴 악성 종양(암)을 치료하면서 비로소 내 몸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자신과 타인, 또는 환경에 의해 나의 몸은 혹사당했는지, 사적일 수 있는 질병 서사가 바이러스로 인해 보편적으로 확장된 기묘한 타이밍에 나는 몸이 숨 쉬는 곳, 몸이 쉬는

영토와 정신에 대해 멍 때리며 바라본다. 모든 걸 멈추고 오롯이 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작업노트) 김미련 작가는 체중, 온도, 먹은 음식과 약 등, 복용한 시간을 기록하며 매일 자신의 모습을 사진 한 장으로 남긴 것을 이번 전시에 설치한다. ‘자화상 조각’은 좌대 높이만큼 쌓아 올린 자화상 사진이다. 이 시간의 오브제를 사포로 갈아내고, 사진을 잘게 잘라 붙인 영상꼴라쥬는 몸이 어떻게 여러 겹의 관계 안에서 충만하게 실존할지, 주관적인 관찰과 처절한 고민이 잉태한 작품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서사에서부터 확대된 도시공간까지, 예술가의 몸으로 느낀 시간 즉, 삶의 면모를 이번 전시작 ‘시간의 피부’가 품고 있다. 시간은 곧 삶이며 살아야만 느낄 수 있는 단위이자 개념이 아닐까 한다. 몸은 살아서 시간 속을 유영한다. 이번 전시에서 세 명의 초대작가는 각자의 시각으로 풀어낸 다양한 영상설치작품을 설치한다. 그것이 우리 삶의 표면과 이면을 두루 건드린다. 시간은 예술작품 속에서 현실이 토해낸 촉각과 질감을 또 다른 감각으로 드러내곤 한다. 시간은 각자의 기억 속에서 저마다의 피부로 존재를 조명한다. 예술가들은 그 속에 깃든 희노애락을 예술작품으로 추창조 한다. 참여 작가들은 코로나19 외에도 다양한 삶의 무게를 예술로 성찰하고 치유로 조형하여 환기를 도모한다. 세 명의 초대작가 중 손영득은 영상설치 작품 1점, 오정향은 영상설치 작품 2점, 김미련 작가는 평면작품 3여과 영상 1점, 입체작품 1점을 전시한다. 7월 8일 오후 5시 오픈식에 이어 전시 부대행사로 전시장에서 김미련 작가의 20분 영상토크와 카바레티스트 김주권의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시간의 피부

THE SKIN OF TIME

김미련
KIM MIRYEON
손영득
SON YOUNGDEUK
오정향
OH JUNGHYANG







김미련
Kim Miryeon

goback
60 x 41.5cm, pigment print, 2022



layerd days
29.7 x 42 x 50cm, 사포로 갈아낸 사진더미, 2022

80

김미련

Sliced skin single channel video, loop, 2022



81



몸-시간의 피부

몸에 생긴 악성 종양을 치료하면서
비로소 내 몸을 응시하기 시작하였다.
자신과 타인, 또는 환경에 의해
나의 몸은 혹사당했겠지.

누구나의 사적일 수 있는 질병 서사가
바이러스로 인해 보편적으로 확장된
기묘한 타이밍에 나는 몸이 숨쉬는 곳,
몸이 쉬는 영토와 정신에 대해
멍 때리며 바라본다.
모든 걸 멈추고 오롯이
몸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체중, 온도, 먹은 음식과
약을 먹은 시간을 기록하며
매일매일 나의 모습을
사진 한 장으로 남기고 있다.

이렇게 우연과 필연 속에
강제된 몸 살피기의
시간이 쌓여 오브제가 되었다.
조각의 좌대 높이 만큼 쌓아 올린
시간의 오브제를 사포로 갈아내고,
사진을 잘게 잘라 붙인
영상 골라쥬를 제작하면서
몸이 어떻게 여러 겹의 관계 안에서
충만하게 실존할지 생각해 본다.

나, 너, 우리, 다른 이의 몸-시간의 표면은 어떠
한 질감으로 드러날지,
어떤 기억의 피부를 가지게 될까

'The skin of time- layered time'
42x29.7x50cm
Photo paper, mixed media
2022



'The skin of Time-GoBack' _ 70x48cm _ Pigment Print on Ricepaper _ 2022

'The END'
80x64cm
Everyday Photo
Pigment print on Rice paper
2022





'Sliced skin'_single channel video_loop_variable size_2002

<https://youtu.be/x63ElRoJSfU>



'The skin of Time-passing through'_70x48.8cm_Pigment Print on Rice paper_2022

김미현	
1969	출생
학력	
2013	경북대 디지털미디어아트 박사수로
2008	독일 뒤셀도르프국립미대 학사, 석사과정졸업, A.R.Penck 마이스터슐러 사사
1992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 졸업

개개인전	
2022	The skin of time 2, 수성아트오딧세이, 수성아트피아, 대구 예정 시간의 피부 5.2-5.13, 갤러리 아트컨티뉴, 서울
2019	SPOOKY MENTAL, Gabi Rottes와 2인전, 갤러리 구빌리아, 에센, 독일 Return, 라움퓌어라움 Raum für Raum, 뉘셀도르프, 독일
2018	랜덤 그리드, 랜덤 대구 Random Grid, Random Daegu, 향촌문화관 기획, 타임프레이밍展, 대구
2016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투비아 기획개인전, SO.S프로그램, 서울 메모리 에러, N35.5539, E128.41378, 경남메세나지원작가전, DM갤러리, 창녕
2015	빛과 철, 기억의 미래 11회 일월문화제 상징기획전시, 포항 문화예술회관 2전시실, 포항
2014	moving scape 특별기획전, 웃는얼굴아트센터, 달서문화재단, 대구 기억의 미래, Mullae Scanning Noise Mapping, 대안공간 이포 기획전, 서울
2013	The spatial Plants, 스페이스 두루, 릴레이 기획전, 서울
2012	빛 2012, 하정웅 청년작가초대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1	The spatial Plants, 주)독일한국문화원 코리아갤러리, 기획공모전, 베를린, 독일
2010	Monumental Aircoat in Glassbox 유리상자, 기획공모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9	Remapping V, 스캐닝 포토, 렉서스 갤러리 기획전대전, 대구 2009 올해의 청년작가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8	Farbe, Licht, Raum, Günter Dohr교수와 2인전, St. Marien, 라데폴름빌트, 독일 before-after 숙명여대 문신미술관 빛 갤러리 공모전, 서울
2007	moving Image, 야누어 갤러리초대전, 보کم, 독일 Remapping Worringerplatz, 클라스하우스 기획공모, 뉘셀도르프, 독일
2006	콘스트투름갤러리 기획전, 라팅엔, 독일
1997	Remapping2, 포름 바서투름 기획전, 매어부쉬, 독일 정전 속의 눈빛, 예술마당 술, 대구

그림전

2022 Colener Zimmer, 6월-7월 예정, 뒤셀도르프, 독일
Printemps, 3.26-4.29, Lachenmann Art gallery,
프랑크푸르트, 독일
범상범사, 3.14-4.6,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구
GOOD NEWS, 1.19-2.19, Lachenmann Art Gallery,
콘스탄츠, 독일
Hidden Messages, 2.11-2.26, Galeria Cenzontle,
멕시코시티, 멕시코
잘:will live well, 프로젝트 스페이스 바인딩, 창원

작가약력
Artist Biography

2021

바람이 불어오는 곳, 대구,
이상춘현대미술학교(RICA)기획, 범어아트스트리트
오픈갤러리, 대구
양가성은 이제 새로운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Die
Ambivalenz bekommt jetzt eine neue Richtung
10.29-12.3, Gallery Lachenmann Art, 프랑크푸르트,
독일
월간 인미공, 8월호, 점멸하는 집, 인사미술공간, 서울
2021 아포리아 국제마을영화제, COVID 특별전, 대구
로컬포스트&실협극장 카바리움, 강원도 인제 서화리
마을극장DMZ
제주 달란미술사진관, 제주-한림 복합문화공간 책
한모금, 전북 진안 운산습지공원
가장 보통의 날들, 프로젝트 그림 갑자기, 갤러리 문 101,
대구
HIDDEN Messages, AllArtNOW, 스톡홀름, 스웨덴
예술법 전환의 시대, 예술노동, 밥에 관한 새로운
상상展,
대안예술공간 이포, 서울

2020

예술 수 희망 in 달서 시네마 프로젝트, 동인아파트
272의 골라주, 대구
이야기 가지 있다, 대학문화예술기움, 로컬포스트(기획,
디자인, 아카이브), 경북대 조소동 및 대학 주변 상가내
전시&온라인 전시
연극으로 쉬었다, 1회 충동연극전, 나의 살던 고향은
메가폰 스프레이크, 무대영상, 한울림 소극장, 대구
흔들리며 피는 꽃 19, 꿈꾸는 씨어터, 대구
시월 바람 바람 바람, 대구 10월 항쟁, 기억x예술=화해의
난장, 소극장 함세상, 대구
아름다운 사람들 대구전태일기념관 건립 기부 전시회 II,
아트스페이스 루오스, 대구
한-독 국제교류현대미술전, 석암미술관, 대구
새로운 연대, New Communion 릴레이 드로잉,
대구미술관
<https://lockedroomsessions.com/>, 온라인전시
518, 40세 청년 40인이 품은 시간, 소극장 함세상, 대구
5.18 국제표정전, 518민중광장, 518개 표정 퍼레이드,
망원동, 금남로, 용인 근현대사미술관

2019

동인동인 東仁同人, linked 아카이브전시, 봉산문화회관
2전시실, 대구
동인동인 東仁同人, linked 프로젝트, 전시 공연
아파트커뮤니티행사, 동인아파트, 대구
Cube&Boxes return展, Raum für Raum,
뒤셀도르프, 독일
N개의 서울, 이웃, 예술인예술제, 문래창작촌 전시공간
네트워크展 Come on Common, 대안예술공간 이포,
서울
가거로의 문화예술여행, 시간 속을 거닐다,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20회 대구단편영화제, 비온드러인,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대구
Die Grosse 2019, 쿤스트팔라스트 미술관, 뒤셀도르프,
독일
대구 아트레전드 이상춘展,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Ways to Simplicity 15: Yugen - feat. cubes &
boxes, 미츠코 성 미술관, 토덴도르프, 독일
도입시다 Do it Theater 2019-디지털지신밟기,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Cube&Boxes展, Raum für Raum, 뒤셀도르프, 독일
또 다른 가능성, 드로잉, 봉산문화회관 기획, 대구
사루비아 20주년 기념전, 프리퀄 1999-2018,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2018 일상생활비판展, 대안예술공간 이포, 서울
칼라폴 컨버전스展, 경북대미술관, 대구
울산, 빛으로 그리다 미디어파사드, 울산문화예술회관,
2018, 울산전국창작음악제, 울산
Media Glass Party, 오동동 문화광장, 창원
아티스트 북, I-Message展, 어울아트센터 갤러리 금호,
대구
Beyond1, 어울아트센터 갤러리 금호, 대구
THAAD BREAKER LOCAL POST & FRIENDS,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삼삼다방, 대구

2017 미디어아트 상영회 29.97, 부산 영화의 전당 인디플러스,
부산
디지털 에러, 예술상회 토마 기획 3인전, 대구
Deagu in Tact,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우리 우상, 아트스페이스 담다, 서울시립미술관
시민큐레이터프로그램, 서울
미디어아트 상영회 29.97, 부산 영화의 전당 인디플러스,
부산
재생, 새로운 탄생,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DAC 소장작품전, 지난 10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도시의 산책자, 공통도시, 기억, 생태,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2016 전국미술인 시국선언,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및 광장,
광주
2016 칼라폴컨버전스,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KUNSTPOSTSTELLE, 예술우체국, Gallery GEDOK,
베를린, 독일
백화점 옆 식물원, H 갤러리, 대구
무심, 소마미술관, 서울

2015 도시생태도감, 무정구역, 대안공간 이포 개관기획전,
서울문화재단후원, 서울
바람이 지나간 자리, 갤러리아 센터시티, 천안
2015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로컬포스트 전제작품
디렉팅, 강정 디아크일대, 대구
예술, 도시에 서다 대구현대미술 2015,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5 저항예술제, 예술대단자사건 백스미로전, 성남시
구미동 하수처리장 및 오리공원일대,
해방 70주년 기념 역사의 거울전, 아라아트센터, 서울
내가 부른 노래가 고래가 되고, 파도가 되어,
문화아카이브 봄, 서울
망각에 저항하기,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안산
Die Grosse 2015, 쿤스트팔라스트뮤지엄, 뒤셀도르프,
독일
삼평리에 평화를, 대구독립영화전용극장 오오극장, 대구
Discussion Exhibition#1, 예술가들의 썰전,
아트스페이스 펄, 대구
틀-인식의 간극,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2014 내용증명 다원예술프로젝트, 이포, 아르코후원, 서울
울산대구 현대미술교류전,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무빙트리엔날레, 부산일대
저항예술제,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Kunst Punkte 2014 아틀리에 오픈 하우스,
뒤셀도르프, 독일
무용자각 無用自覺, 거리의 춤꾼 유진 박정희 과
애니메이션 영상 협업,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
50개 인터네셔널 공공미술 깃발프로젝트, Flagge
zeigen-50 Kunenstler Fahren, 라데폰발트,
Radevonnwald, 도시 일대, 독일
옥상의 정치, 지역연계프로젝트 옥상민국, 3.14-4.12,

	문래동 일대 옥상, 대안예술공간
	메이드 인 코리아, 유진 유트픽
	페스티벌, 노르망디, 프랑스
	도입시더Do it Theater, 산책퍼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3	전람회의 그림, 전시예술과 공연
	아양아트센터 블랙박스극장, 대
	Daegu Media Art ZKM 2013
	Better Than Universe, 대구예
	이합과 집산, 2013 남부국제현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Videoabend, 아뉴어 갤러리, S
	Side-B, 2013 Glassbox Artist
	대구
2012	삶+소통, 영상예술의 도시, 국립
	대구
	유목적 상상, 컨티넨탈 갤러리,
	일본
	Asia Contemporary Art Sho
	language is the House we li
	2012, Malkasten, Dusseldor
	D Artist, 대구미술관, 대구
	영상예술의 도시-대구, 국립대구
	대구
2011	Now in Daegu 2011-예술의 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특설전
	수상
2016	사루비아 다방 SO.S 프로그램 착
	경남매세나 지원작가
2012	하정웅 청년작가상, 광주시립미
2009	오늘의 청년작가상 대구 문화예
2008	서울 소마미술관 드로잉엔터 아
2003	독일 러벌즈 변호사협회 작가후
	작품소장
	대구미술관, 독일 한국문화원, 국립 과천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 팔레스트 뮤지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용인 근현대사미술
	손영득 Son Youngdo
1968	출생
	학력
2003	영남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1995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개인전
2021	손영득 VR개인전, 갤러리삼삼다
2016	손영득 인터렉티브아트 개인전,
2012	손영득 개인전, 봉산문화회관, D
2011	손영득 애니메이션 개인전, 봉산
2009	손영득 개인전, 클럽THAT, 대구
	단체전
2021	우리동네AR 증강현실 제작 참여
2020	미래산책, 소재동아트벨트, 씨티
2019	인디애니페스트영화제, (사)한도

서울	서울
아트 비디오	대구아트렌전드 이상춘전, 대구
스파티,	산타빌리지 영상트리, 대구예술
의 만남,	동인동인전, 봉산문화회관 2전시
	인디애니페스트 독립보행 부문
	서울
	대구단편영화제 초청상영, 독립
어둠별기획전,	대구
전소, 대구	Tech-Emotion, 어울아트센터,
출제,	대구아트렌전드 이상춘, 대구예
	디지털지신발기, 대구예술발전
독일	또다른 가능성 드로잉전, 봉산문
ject, 봉산문화회관,	2018
출제,	울산미디어파사드, 울산문화예
	행복 줌, 어울아트센터, 대구
박물관 기획전시실,	2017
	대구인텍트전, 대구문화예술
02 갤러리, 사포르,	2016
	도시의 산책자전, 범어아트스트
홍콩2012, 홍콩	CITY FOR WALK, 공동도시, 가
n-Kunstfilmtag	서울
일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영일만,
	여수 예술마루 미디어풍경전, 여
관 기획전시실,	웃는얼굴아트센터 CO-WORK
	2015
트, 대구	2014
	2013
선정	작품수록
	한국독립애니메이션 컬렉션, 20
관	한국단편애니메이션 모음 1-2, 1
브작가선정	
1등상	
	오정향 Oh Junghy
미술관,	1977
구문화예술회관,	출생
다수의 개인소장	
	학력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예술대학 미
	개인전
	2022
	사라진 공간 사라질 공간 기억될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8
	기억 그리고 추억, 명복공원, 대
	2017
	기억과 환영, 봉산문화회관, 대구
석사	2015
학사	가창의 기억, 스페이스 가창, 대
	2013
	門.問.問, 커브2410 범어아트스
	2011
	올해의 청년작가 초대전, 문화예
	2008
	Story of the Street season2
대구	2007
문화회관, 대구	Story of the Street, 수성아트
	아트스페이스, 대구
회관, 대구	주요 단체전
	2021
	우리 동네 AR 세 가지 색 이야기
	일대, 대구
	무영당 일기, 그 날의 기억, 대구
로컬포스트, 대구	진화하는 풍경, 웃는 얼굴 아트스
에너지재단, 대전	2020
심애니메이션협회,	꿈꾸어, 현재교 프로젝트 미디어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발전소, 대구		2020 씨뿌린 사람들, 대구문화재단
소, 대구	2019	새로운 연대, 대구미술관, 대구미술재단
대구		미디어퍼포먼스 도입시더, Do it Theater, 디지털아트센터
롯데시네마 영동,		지신밟기, 대구예술발전소, 대구미술재단
		Tech Emotions, 어울아트센터
전용관 오오극장,		미디어 파사드 동인동인-Linked
		나선형 계단, 대구미술재단
		동인동인 東仁同人, linked 아카이브
		2전시실, 대구미술재단
전소, 대구	2018	LINK-이음과 어울림, 봉산문화회관
대구		아티스트 북, I Message, 어울아트센터
관, 대구		대구미술재단
관, 울산		미디어파사드 울산, 빛으로 그리다
		울산미술재단
대구		Beyond 展, 어울아트센터 갤러리
관, 대구		위로,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미술재단
구 서울역사, 서울		경계없는 유취, 갤러리 ArsS, 대구미술재단
대구	2017	미디어퍼포먼스, 그리움의 거리, 대구미술재단
생태, 갤러리 두들,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서울미술재단
		카코포니 13 Reminder, 갤러리 두들
		여유축적, 대구문화예술회관 가림
루, 여수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재단
있는얼굴아트센터,		Red Holic, 혼다아트라운지, 대구미술재단
대구		수상 및 선정
롯데시네마, 서울	2022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로 대
서울	2020	대구리서치프로젝트 선정, 현재
		대구예술발전소
	2017	대구문화재단 개인예술가창작자
	2015	대구문화재단 학술발간지원 개
		기억
	2014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예술인, 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3	커브 2410 선정 작가, 범어아트
	2011	올해의 청년작가상, 대구문화에
	2008	아시아프 ASYAAF, 선정 작가
		전시기획 및 진행
	2019	도입시더 Do it Theater, 디지털
		리더
과 졸업	2018	TAG, Team work of Artists G
		수창청춘맨손
		수창청춘맨손 프로그램 매니저
관,	2017	인 대구 미디어파사드 코디네이
		대구문화예술회관 가정의 달 기
	2009	크로스오버展 전시 기획 (경복대
	2008	비상한 비상展 전시 기획 (경복대
트 스페이스5, 대구		레시던시
관, 대구	2020	대구 리서치 프로젝트, 대구예술
산문화회관, 대구	2014	텐토픽 프로젝트 II, 대구예술발
뉴프론티어	2013	텐토픽 프로젝트I, 대구예술발전
	2010	가창창작스튜디오
인동 재개발지역		도시
	2015	가창의 기억
관, 대구		작품소장
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 한국 감정원
트먼스,		하양 맑은 신경과병원

eater, 디지털
 리 금호, 대구
 인아파트 외벽
 전주시, 봉산문화회관
 대구
 센터 갤러리 금호,
 울산문화예술회관,
 금호, 대구
 전백리,
 3, 대구
 달 기념전,
 대구문화재단
 로젝트,
 선정
 술가 선정, 가창의
 테이터,
 리트
 관
 신밭이 프로젝트
 p, 전시 기획 ,
 보조기획자
 미미술관)
 미술관)
 작소
 보루스
 로컬포스트
 구중구보건소,

김미련
KIM MIRYEON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미대 학/석사
경북대 디지털미디어아트 박사수로, 그룹 ‘로컬포스트’ 대표

개인전

2022 ‘시간의 피부’, 갤러리 아트컨티뉴, 서울

2019 ‘Return’기획개인전, Raum für Raum, 뒤셀도르프, 독일

2018 ‘Random Grid, Random Daegu’, 향촌문화관 기획전인전,
타임프레임展, 대구

그룹전

2022 ‘Hidden_Messages’, Galeria Cenzontle,
멕시코시티, 멕시코

2021 ‘양가성은 이제 새로운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Gallery Lachenmann Art, 프랑크푸르트, 독일

2021 <월간 인미공> ‘8월호/점멸하는 집’, 인사미술공간, 서울

손영득
SON YOUNGDEUK

영남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미술석사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미술학사
계명문화대학교 영상툰널애니메이션학부 애니메이션전공 교수
애니메이션 감독, 미디어아티스트

개인전

2021 손영득 VR개인전, 갤러리삼삼다방, 대구

2016 손영득 인터랙티브아트 개인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2 손영득 개인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그룹전

2021 우리동네AR 증강현실 제작 참여작가, 로컬포스트, 대구

2020 미래산책, 소재동아트벨트, CNCITY마음에너지재단, 대전

2019 인디애니페스트영화제,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서울

오정향
OH JUNGHYANG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022 사라진 공간 사라질 공간 기억될 공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8 기억 그리고 추억, 명북공원, 대구

2017 기억과 환영, 봉산문화회관, 대구

그룹전

2021 우리 동네 AR 세 가지 색 이야기, 동인동 재개발지역 일대, 대구

2021 무영당 일기-그 날의 기억, 대구문학관, 대구

2021 진화하는 풍경, 웃는 얼굴 아트센터, 대구

2022년
수성아트피아 기획전
《수성아트오디세이》

《수성아트오디세이》는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기간 중 수성구 관내 갤러리를 찾아가서 개최하는 기획전시이다. 호메로스의 시 〈오디세이〉에서 차용한 《수성아트오디세이》는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에 창작의 과정과 전시의 여정을 비춘 것이다. 작가와 갤러리, 관람객들 간에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한 이번 순회전은 2007년 수성아트피아 개관 이래 첫 시도이다.

수성아트피아를 벗어난 이번 전시는 새로운 환경과 만나는 수성구의 모험이자 상생의 여정이다. 수성구 관내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장소를 제공해준 〈소나무갤러리〉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새로운 연대를 도모한다.

초대작가 3인은 김미련, 손영득, 오정향이며 이들 3인은 지역에 거처를 두고 국내외 무대에서 개성 있는 작품을 발표해왔다. 초대작가 3인의 공통점은 고도의 테크닉으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각각의 작업세계를 깊고 넓게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사물에 접근하고 작업으로 풀어내는 사고가 매우 입체적이다. 이번 전시 작품은 영상설치 작품이 주가 된다.

삶은 시간 속에 흘러간다. 시간은 곧 삶이며, 살아서 느낄 수 있는 단위이자 개념이다. 이번 전시는 세 명의 작가가 설치한 영상설치작품이 삶의 표면과 이면을 건드린다. 지극히 개인적인 서사에서부터 도시공간에 대한 기억에 이르기까지, 예술가의 눈으로 본 삶의 면면, 즉 성찰과 환기, 기억, 치유를 공감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초대작가 중 손영득은 영상설치 작품 1점, 오정향은 영상설치 작품 2점, 김미련은 평면작품 20여 점과 입체작품 1점을 전시한다. 7월 8일 오후 5시 오픈식에 이어 전시 부대행사로 김미련 작가의 20분 영상토크와 전시 작품을 토대로 변주한 카바레티스트 김주권의 퍼포먼스도 기대된다.

전시일정

2022.7.7.(목)~7.23.(토)

전시장소

소나무갤러리
대구시 수성구 지범로 17길 86
T. 053 423 1186

전시오픈

2022.7.7.(목) 전시 오픈
2022.7.8.(금) 17:00 오프닝 행사
[영상토크-김미련 작가]
[퍼포먼스-김주권 카바레티스트]

관람시간 · 입장료

10:00~18:00 · 무료

휴관일

일요일, 월요일 휴관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성아트피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SUSEONG ARTPIA, ALL RIGHTS RESERVED

수성아트피아
42188)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180
T. 053 668 1800 | www.ssartpia.kr

수성아트
오디세이

#4 시간의 피부

김미련 · 손영득 · 오정향

수성아트피아 ×
소나무 갤러리

2022.7.7. – 7.23.

김미련
KIM MIRYEON

몸-시간의 피부

몸에 생긴 악성 종양을 치료하면서 비로소 내 몸을 응시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자신과 타인, 또는 환경에 의해 나의 몸은 혹사당했겠지. 누구나의 사적일 수 있는 질병 서사가 바이러스로 인해 보편적으로 확장된 기묘한 타이밍에 나는 몸이 숨쉬는 곳, 몸이 쉬는 영토와 정신에 대해 멍 때리며 바라본다. 모든 걸 멈추고 오롯이 몸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체중, 온도, 먹은 음식과 약을 먹은 시간을 기록하며 매일 매일 나의 모습을 사진 한 장으로 남기고 있다. 이렇게 우연과 필연 속에 강제된 몸 살피기의 시간이 쌓여 오브제가 되었다.

조각의 좌대 높이 만큼 쌓아 올린 시간의 오브제를 사포로 갈아내고, 사진을 잘게 잘라 붙인 영상플라쥬를 제작하면서 몸이 어떻게 여러겹의 관계 안에서 충만하게 실존할지 생각해 본다.

나, 너, 우리, 다른 이의 몸-시간의 표면은 어떠한 질감으로 드러날지, 어떤 기억의 피부를 가지게 될까?



Sliced skin
single channel video, loop, 2022

손영득
SON YOUNGDEUK

불안과 안정 사이

외발자전거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관객 친화적인 작품이다.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예술이다.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행위는 스크린 화면의 변화를 유발하고 그를 통해 관객은 좀 더 몰입된 성취감을 가질 수 있고 관람객의 능동적 개입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예술이다.

관람객을 작가의 작품 속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은 작가에게는 작품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긴 호흡으로 작품을 감상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품 제목 불안과 안정 사이는 외발자전거의 특성은 중심을 잡기 위해 사람이 필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서도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정한 것을 극복하고 안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람객이 외발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스크린에 애니메이션이 나온다. 그 내용은 주로 대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역사는 시민들의 직접적 행위를 통해 변화시켜온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판타지적이고 초현실적인 화면의 구성은 마치 자전거를 타고 꿈속을 유영하는 듯한 상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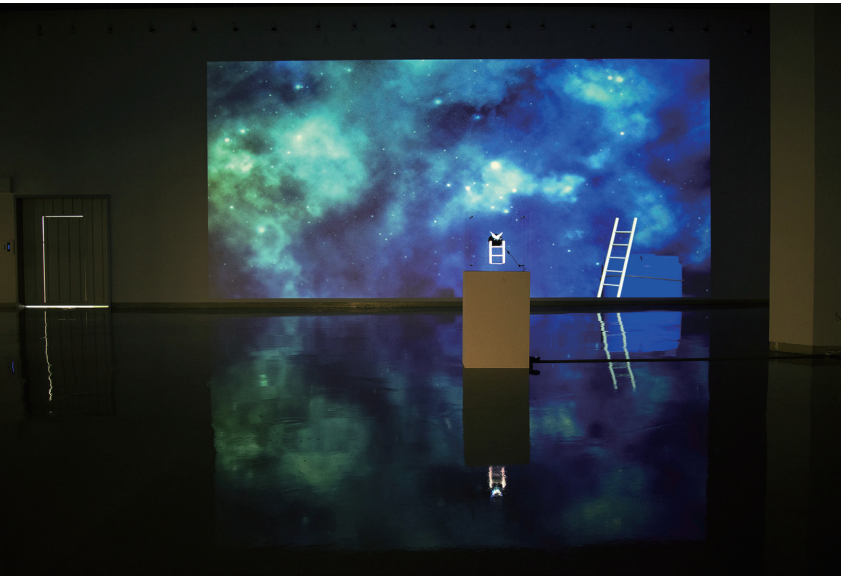


내딛는 순간 기억 저편
인터랙티브 영상 설치, 2021

오정향
OH JUNGHYANG

기록된 기억

기록된 기억은 도시공간이 생성과 소멸 반복하는 사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공간을 기록한 이미지에서 출발한다. 낡은 사다리가 놓인 아파트 화단, 저층 아파트의 옥상과 같은 풍경은 지금은 볼 수 없는 이미지가 되었다. 이런 풍경은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누군가에게 익숙한 기억 속 풍경일 것이다. 작품의 이미지(영상)는 재현과 창작 사이에 있다. 작품은 사람들이 가진 공간의 기억에서 출발하지만 창작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낯설지만 익숙한 풍경을 보여준다. 이 낯설지만 익숙한 작품 속 풍경을 통해 관람자가 자신만의 기억을 소환하도록 유도하고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기억 공유자-작가-관람자를 연결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오브제를 홀로그램 영상으로 만들어 별도로 전시하는데 이것은 기억 소환의 매개이자 동시에 기억을 재생하는 재생 버튼(button)의 역할을 한다.



기록된 기억(recorded recollection)
가변크기, 인터랙티브 영상 설치, 2분 50초, 2022